

남성 심볼의 크기

어

느 한국 사람이 러시아로 단체 관광을 떠났다가 잘못하여 단체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갑자기 배가 고파서 호텔의 식당으로 들어갔으나 메뉴판을 읽을 수도 없고 영어도 안통하고 당황하고 있는데 마침 어떤 흑인이 웨이터를 손짓으로 부르더니 접시를 가져오게 한 다음 허리춤을 내리고 접시를 갖다 대니까 웨이터가 머리를 끄덕이더니 계란 2 개와 커다란 소세지 한 개를 갖다 주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하였더니 한참 후에 웨이터가 가져온 것은 번데기 한 개와 메추리알 두 개를 갖다 주더라고 한다.

욕심이 한없이 크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서 남성들은 대부분 자기의 성기의 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크게 만들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한다. 비뇨기과 의사가 보기에도 남보다 월등히 커서 만족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좀더 크게 할 수 없느냐고 불만일 때는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할지 모르겠다.

이런 신경증 환자들은 자기의 음경의 크기를 성인 평균치에 잘못 적용한 때문에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즉 평균치의 최소치를 생각하지 않고 최대치만 생각하여 남보다 작다고 열등감을 느낀다. 대체로 발기했을 때의 음경의 길이가 5cm 이상이면 성교에는 큰 지장이 없고 음경의 크기가 성적 능력에 비례하거나 여성이 받는 성적 감각의 강도에 비례하지 않는다. 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하였다. 평소에 작은 음경은 발기될 때는 굉장히 커지고 큰 것을 발기될 때 얼마 길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발기됐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

정상적인 음경의 크기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작다고 느끼는 원인은 자기 것은 내려다보니까 실제 크기의 70% 정도로 보이고 또 남의 떡은 더 커 보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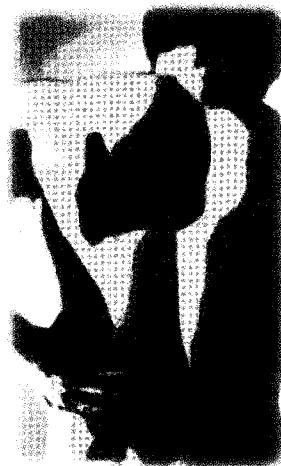
음경이 작다고 고민하기 전에 성생활의 올바른 지식과 전희 등의 기교, 알맞은 성교자세를 취하여 성적 만족을 얻어야 하겠다. 음경이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배를 타는 사람, 교도소에 다녀온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간혹 칫솔대를 갈아 음경 피부 속에 넣거나 금을 넣은 경우도 있다. 얼마 전에



차영일 비뇨기과 원장

고기잡이 어선의 선원 십여 명이 파라핀 액을 음경에 주사하면 멋지게 커진다는 남의 꼬임에 빠져 전원 모두 파라핀 액을 주사기로 음경에 넣었다가 부작용으로 파라핀 액이 음경조직에 파고 들어가 피가 안 통하고 썩어서 진물이나서 배가 출항을 하지 못한 넌센스도 있었다. 이럴 때는 썩은 조직을 전부 제거해 주어야 한다. 심한 경우에는 조직에 파고든 파라핀을 제거하고 모자라는 음경의 피부를 음낭으로 둘러 싸서 파묻어 놨다가 몇 개월 지나서 음낭의 피부로 대체해 주어야 한다.

중증인 경우는 액체인 파라핀 액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하여 지난 번 울산에서 돌파리에게 파라핀 액을 주입하여 유방화대술을 받고 사망한 사건과 같이 림프관을 타고 폐로 올라가 폐 전색종으로 사망하는 수도 있다.



심리적 자신감이 중요하다

여성의 질은 필요할 때는 아기의 머리가 나올 만큼 늘어나지만 어떤 때는 손가락 하나만 넣어도 많이 아파한다. 질을 인위적으로 좁혀 놓으면 나이가 들어 성교 때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폐니스도 파라핀을 주사한다든가 다른 물건을 넣어 크게 만들어 놓으면 성생활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나 기형이 아닌 경우에는 손을 대지 않아야겠다. 키가 커야 위대한 사람이 되나? 연필이 길어야 공부 잘하나? 가방이 커야 공부 잘하나? 다 자기가 노력할 탓이 아닌가.

그래도 성기가 작아서 부끄럽고 공중목욕탕에도 갈 수 없어서 꼭 확대술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이 들면 비뇨기과 전문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자기의 엉덩이나 아랫배, 넓적다리 등에서 진피지방을 떼어내 이식술을 받는 것이 좋으나 귀두는 커지지 않는다. 수술 시간은 약 2시간, 치료는 10일 전후 받는다. 성생활은 3~4주 후에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이 너무 많아 이왕하는 김에 자기의 팔뚝만큼 크게 해 달라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4cm정도 크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폐니스의 크고 작은 형태가 아니고 왕성한 기능이라는 것이며, 심리적인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